



7일 열린 KBS 2TV '맨홀:이상한 나라의 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주연배우들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담은 듯한 코믹한 포즈를 취하며 시청자에게 전할 '웃음'을 예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유이 김재중 정혜성.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병맛 김재중·허당 유이, 이런 모습 처음이야!

〈맥락 없고 어이없는 웃음〉

## 내일 첫 방송 '맨홀' 웃음폭탄 장전

남성미 '0' 김재중, 청순미 '0' 유이 첫 코믹장르 드라마서 유쾌한 변신 울림 무더위 날리는 '사이다' 기대

9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맨홀:이상한 나라의 펄' 주인공 김재중과 유이가 '코믹'이라는 무기로 무더위 속 시청자를 TV 앞으로 유인한다. 김재중은 '병맛'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는 웃음의 매력으로, 유이는 '허당'으로 웃음을 만들어낸다. 특히 두 사람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생을 리모텔링 해봐"라는 대사처럼, 이전까지와는 다른 연기자의 모습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맨홀:이상한 나라의 펄'(맨홀)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의 총 책임자인 연출자 박만영 PD는 "제가 찍은 것 같지 않게 굉장히 재밌었다. 그 이유는 출연자들의 연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김재중과 유이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맨홀'은 대학 졸업 후 3년째 공무원으로 준비 중인 '백수' 봉필(김재중)과 미모로 동네 모든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수진(유이)에 얽힌 사랑과 우정을 다룬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맨홀을 통해 봉필이 현재와 고교시절을 오가며 겪는 과정을 코믹하게 풀어간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첫 코믹 장르에 도전하는 김재중은 거침없이 망가진다. 극중 험렁한 티셔츠, 트레이닝팬츠, 슬리퍼 차림

으로 동네를 휘젓고, 술에 취해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카리스마 넘쳤던 남성은 온데간데없다. 그는 "저 스스로도 코믹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촬영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를 알았다"며 웃었다. 김재중에게 이번 드라마는 2015년 KBS 2TV '스파이' 이후 2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이자, 지난해 12월 30일 만기제대 이후 드라마에 복귀하는 작품인 만큼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다.

유이는 '남성의 첫사랑 상대는 청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포부로 나선다. 그는 "왈가닥한 성격"의 캐릭터를 위해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겉으로는 완벽해보이지만 길을 걷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2% 부족한" 엉성한 반전 모습을

보여준다. 유이의 이 같은 변신은 그가 연기자 전향 후 처음으로 도전하는, 자신의 연령대와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불야성' 결혼계약 '황금무지개' 등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아 온 유이는 '맨홀'을 통해 밝은 매력을 드러내며 이미지 전환도 노린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정성호 KBS 드라마 센터장은 '맨홀'에 대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재중도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웃으면서 시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매력적 김재중과 유이의 유쾌한 변신이 인방극장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유승호

## 일본팬 만나는 유승호, 꾸준한 한류공략

내달 25·30일 '군주' 홍보 겸 팬미팅

연기자 유승호가 일본 여성 공략에 나선다.

유승호는 9월 25일 도쿄 도요스 팟, 30일 오사카 펠파크홀에서 팬미팅을 연다.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반 만의 일본 방문이다. 팬들과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사진 찍기, 악수회 등의 내용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팬미팅은 유승호가 주연해 지난달 13일 종영한 MBC 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군주)의 현지 방송을 앞두고 성사됐다. '군주'는 한류전문채널 KNTV를 통해

9월 20일 1회 선 공개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된다. 드라마의 일본 방영이 결정됐지만 프로모션 등 홍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 유승호는 팬미팅에서 드라마를 적극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2일 발매되는 한 한류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서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등 여러 경로로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유승호의 한류 공략법이다. 그는 국내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맡길 때마다 현지를 찾으며 팬들과 소통

해왔다. 2012년 첫 방문은 '아랑사포전' 종영 후 '보고 싶다' 출연 중에 이뤄졌다. 이후 군에 입대한 그는 2014년 12월 4일 만기 제대하는 동안 일본 팬들을 찾았으며, 2016년 4월에는 '리멤버-아들의 전쟁'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유승호가 일본 인기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프로포즈 대작전'(2012)과 '공부자의 신'(2010)에 출연해 현지 시청자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은 경험이 지금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해시태그 킷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의 태양과 후배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기념사진을 찍었다. 태양의 일본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블랙핑크는 공연 뒤들이 자리에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태양은 "나의 귀여운 블랙핑크"라며 자신의 공연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 블랙핑크의 지수 로제 리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제니는 태양과 똑같이 팔짱을 낀 포즈로 화답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선후배라면 '태양·블랙핑크'처럼...

사이좋은 선후배의 좋은 예이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의 태양과 후배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기념사진을 찍었다. 태양의 일본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블랙핑크는 공연 뒤들이 자리에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태양은 "나의 귀여운 블랙핑크"라며 자신의 공연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 블랙핑크의 지수 로제 리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제니는 태양과 똑같이 팔짱을 낀 포즈로 화답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투아 #빅뱅 #태양 #콘서트 #블랙핑크 #응원왔어요 #훈훈한선후배

## 스타브리핑

### 한예슬 목소리 참여 '앨리스' 전시회 첫 선



한예슬

●...배우 한예슬이 8일부터 서울 성수동 서울숲 갤러리아포에서 열리는 '앨리스: 인투 더 래빗 홀' 미디어아트 전시회의 오디오 가이드로 관람객을 만난다. 한예슬은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목소리 재능기부 참여 제안을 수락해 최근 녹음을 마쳤다. 한예슬은 오디오 가이드 외에 인터랙티브 공간을 구성하는 콘텐츠 녹음에도 참여했다. '겨울 나라의 앨리스'의 '말하는 꽃들의 정원'이 모티브인 체험 공간에서도 한예슬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 신인 걸그룹 위키마키, 첫 음반 '위미' 공개

●...신인 걸그룹 위키마키가 8일 데뷔한다. 위키마키는 이날 오후 6시 데뷔음반 '위미'를 발표한다. 이에 앞선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언론매체를 상대로 '위미'를 처음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가지고, 오후 8시에는 팬들을 상대로 다시 쇼케이스를 가진다. 위키마키는 지난해 엠넷 '프로듀스101'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I.O.I 멤버로 활약했던 최유정, 김도연이 소속된 신인 그룹이다. 1500석 규모의 팬 쇼케이스는 입장권 예매사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TV 프로그램 8일(화)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August 8th (Tuesday)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KBS1, KBS2, MBC, SBS, and others. It lists program titles, start times, and episode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annel A's '오늘의 채널A' (Today's Channel A) featuring a news anchor and text about the benefits of their daily program.